

공립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 공고

내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2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15일 홈페이지(알림사항-고시/공고)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시험에 총 모집인원은 유치원 교사 28명(장애 2명), 초등학교 교사 61명(장애 5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9명(장애 1명), 특수학교 초등학교사 13명(장애 1명) 등 총 109명(장애 9명)으로, 이는 지난해 8월 12일 사전 예고한 84명 보다 25명이 증가했다.

원서접수는 10월 4일~8일까지 5일간 '전북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제1차 시험은 11월 13일, 제2차 시험은 2022년 1월 12일~14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된다.

제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2년 2월 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사항-고시/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사항-고시/공고)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획기적인 교육 실현시킬 것”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

“학교가 기본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이 제19대 전북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전주교육장은 1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교감, 교육장 등을 두루 거친 풍부한 학교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와 AI시대대에 맞춰 전북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폐교 위기에 놓인 회현중학교를 전국에서 다시 찾는 혁신학교로 변화시켰고, 기피 학교였던 옥구중학교와 한들고를 지역에서 사랑받는 학교로 만들었다”며, 학생, 교사, 지역사회와 다양하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전북교육 변화의 에너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전주교육장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정책도 공개했다. 먼저 슬로건으로는 ‘학교가 바뀐다! 이항근은 합니다!’라고 정하고, 다양한 교육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실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주요 정책공약은 377 민주혁신교육'으로 먼저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선 중양정부교육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비율을 높여 전북교육예산 4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시대 원격 수업이 확산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학습결손과 학력저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도 제시했다. /정은성 기자

먼저 도교육청의 역할과 권한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과감하게 이양해 각 교육지원청에 기본학력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습결손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의 과밀학급, 농촌의 과소학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농촌간 공동통학구를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신규 원주, 김제, 임실 등의 농촌 소규모학교와 공동통학구를 구축, 희망학생에 한해 도시학교에서 농촌학교로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 생애주기별(초·중·고) 자기주도 학습비(연 50만원) 지원도 약속했다. 상위 학급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비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전주교육장은 회현중과 한들고에서 실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며, 이를 위해 약 24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11월말 결정되는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은 군산고와 공주사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고창 신흥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37년 간 교직생활을 했다. 또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4년 8개월), 2008~4년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2월 전주교육장으로 퇴임했다. /정은성 기자

도내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전북대, 경쟁률 7.68대 1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2,771명 모집에 21,278명이 지원해 7.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6.38대 1보다 다소 상승한 결과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922명 모집에 14,123명이 지원해 7.35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 6.61대 1보다 소폭 올랐고, 학생부종합전형은 849명 모집에 7,153명이 지원해 8.43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 5.88대 1보다 대폭 상승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일반전형의 치의예과는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8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의예과 30.88대 1, 약학과 26.25대 1, 수의예과 14.08대 1, 간호학과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해마다 모집인원을 확대해 온 지역안전전형은 387명 모집에 2,425명이 지원해 6.2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큰서류전형의 컴퓨터공학부 26.33대 1, 심리학과 26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의·약학계열의 경우

간호학과 25.6대 1, 치의예과 25.5대 1, 약학과 25대 1, 수의예과 22.5대 1, 의예과 14대 1의 경쟁률로 보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별 경쟁률은 큰서류전형이 483명 모집에 5,627명이 지원해 11.65대 1, 사회통합전형이 11명 모집에 132명이 지원해 12대 1, 국가보훈대상자전형은 26명 모집에 90명이 지원해 3.46대 1, 농어촌학생전형은 120명 모집에 611명이 지원해 5.09대 1, 기회균형선발전형은 76명 모집에 433명이 지원해 5.7대 1, 특성화고졸출자 전형이 13명 모집에 162명이 지원해 12.46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단계별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전북대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한다. 11월 12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25일 2단계 면접을 거쳐 12월 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도 12월 16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경쟁률 4.06대 1

전주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602명 모집에 10,576명이 지원하여 4.06:1로 마감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의 경우 평균 4.38: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학과별로는 방사선학과가 16.30: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순으로 보건계열 학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전형은 평균 4.32:1의 경쟁률을 보였고, 보건계열 중에서는 간호학과가 16.75: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경찰학과 6.41:1, 사회복지학과 5.17:1, 단계별 선발에 따라서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하여 5배수를 선발한 후 11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면접고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비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12월 10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36명 모집에 206명이 지원하여 5.72:1, 특성화고졸출자전형의 경우 23명 모집에 119명이 지원하여 5.1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의 경우 72명 모집에 297명이 지원하여 4.13:1, 실기/실적(특기자전형)의 경우 23명 모집에 58명이 지원하여 2.52: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중 면접이 있는 학과(신학과경배전양학과, 운동처방학과, 경지도학과, 축구, 공연방송연기학과, 신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와 실기고사가 있는 학과(경기지도학과, 태권도, 생활체육학과, 음악학과)는 10월 23일에 비대면 면접 및 대면 실기고사가 실시되며, 학생부종합전형은 단계별 선발에 따라서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하여 5배수를 선발한 후 11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면접고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비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12월 10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일반전형 8.48대 1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 14일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전형 850명 모집에 7205명이 지원해 8.48대 1로 도내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반전형 전체 학과 중 경쟁률 상위 학과는 실용음악학부로 총 119명 모집에 3288명 지원으로 27.5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용음악학부 보컬전공 17명 모집 1588명 지원 93.24대 1 ▲간호학과 47명 모집 806명 지원 17.15대 1 ▲물리치료학과 32명 모집 505

명 지원 15.78대 1 ▲호원의식조리학과 18명 모집 260명 지원 14.44대 1 ▲응급구조학과 37명 모집 236명 지원 7.11대 1 ▲치위생학과 29명 모집 208명 지원 7.11대 1 등이다. 취업률이 비교적 높은 보건계열 등의 지원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호원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은 실용음악 보컬전공을 비롯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실기고사를 실시한다. 수험생을 위한 실기고사 예약제를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한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수시모집 결과 4.6:1

우석대학교(총장 남진현)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전주캠퍼스 기준으로 1204명 모집인원에 5543명이 지원해 4.6: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모집 결과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교과중심 전형에서 약학과가 33.13:1, 한의예과(자연)는 32.25:1, 물리치료학과는 15.14:1을,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약학과가 21.17:1, 한의예과(자연)가 17.00:1, 간호학과가 8.08:1을 기록했다.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전형 1단계

합격자는 오는 10월 8일 15시 우석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각 전형별 면접과 실기고사는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5일이며,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학과는 12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우석대학교 입학홍보처'와 입학정보 통합 상담전화(063-290-1037~42/043-531-2740)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은 15일 '2021학년도 산학연계 교육과정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비전대, 유학생에 추석선물 나눔행사

“코로나로 인해 타 지역 방문조차 못한 마음 위로해주고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문운규)는 15일 국제교육원 대강의실에서 유학생들을 위해 추석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운규 총장직무대행은 “한국에서 추석을 풍성히 결실의 기쁨과 함께 가장 좋은 시절로 다도 밟고 달도 밟고 한가위(추석)만 같아라”라고 표현하며, “유학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문 창려선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담아 유학생들을 격려했다.

행사를 준비한 국제교육원 이효숙 원장은 “타국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연휴기간 동안 여행이나 타 지역 방문조차 자유롭지 못한 유학생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어 ‘추석 사랑 나눔’을 준비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정은성 기자

위장관 상피하종양 치료 경향 제시

예수병원 조진웅 부원장, 우수논문상 수상

예수병원(원장김철승)은 조진웅 부원장(소화기내과)이 지난 1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Clinical Endoscopy' 발행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 'Current Guidelines in the Manage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Subepithelial Tumors'로 발표된 이 논문은 위장관의 상피하종양에 대한 치료에 대해 최신 경향을 제시했으며, 지난 10년간 'Clinical Endoscopy'에 발표된 1200여편의 논문 중에서 최다 다운로드를 기록한 논문으로 선정됐다.

영문 국제학술지인 Clinical Endoscopy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KSGE), 국제소화기내시경 네트워크(IDEN), 베트남소화기학회(VFDE), 태국소화기내시경학회(TAGE)의 공식 학술지이며, Scopus, EBSCO,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BSC)에 등재돼 있다.



조 부원장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발행된 교과서인 '소화기내시경'의 집필이 저술에도 참여했으며, 세계 최초로 장막하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내시경적 수술을 여러 차례 성공해 내시경적 절제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영태 기자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은 15일 '2021학년도 산학연계 교육과정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석대,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LINC+사업단 산학연계 교육과정 영상김민선 학생 대상 수상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은 15일 '2021학년도 산학연계 교육과정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이종석 LINC+사업단장, 김대진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수상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모전은 산학연계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경험 공유와 취·창업 연계 등 산학협력 문화 확산과 관련 교육과정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열렸으며, 브이로그와 VR영상 등 다

수의 영상콘텐츠가 출품됐다. 김민선 학생(한국학과 2년)이 캡스톤 디자인 브이로그 영상으로 대상을 차지했으며, 병방아 아용혜조 팀(제약공학)은 최우수상을, 조용의(한국학과 2년) 학생은 우수상을, 윤희범(전기전자공학 4년)·송지은(제약학과 4년) 학생은 참가상을 받았다.

한편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은 1단계 대학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영상콘텐츠 2편(대상·최우수상)을 한국연구재단에 출품해 2단계 전문가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